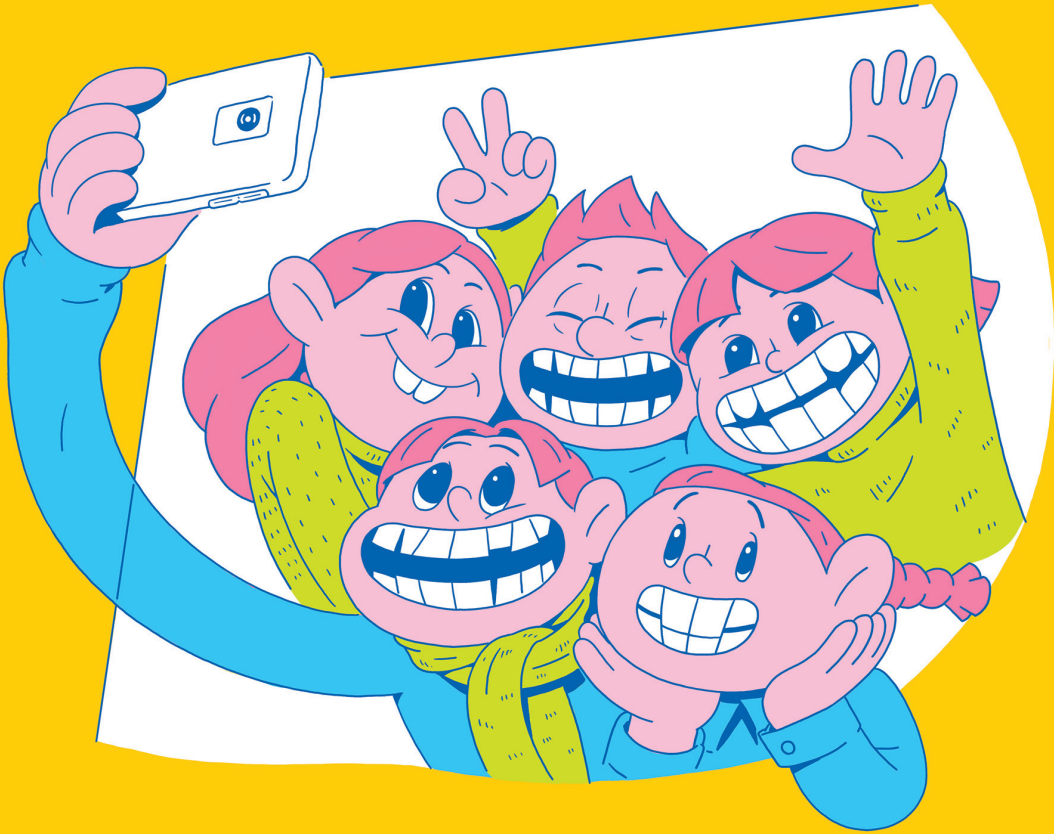


빼빼빼빼하면 어때?

글 류재인 이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야. 응? 무시무시하다고?

그림 소경섭 삼촌



동무들, 안녕! 바람도 매섭고, 어쩌면 눈이 왔을 수도 있겠다! 다들 건강하게 지냈니? 칫솔질 동무 만들어서 같이 양치질하기, 잘 지키고 있지?

오늘은 치아교정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치아교정이 뭐냐고? 쉽게 말하면 빼빼빼뺄한 치아 순서를 가지런

하게 만들고, 앞뒤로 튀어나온 이는 알맞은 위치에 넣어주는 치과 치료야. 교정이라는 말은 틀린 걸 바로잡는다는 뜻이지. 교정 치료는 중요해. 앞뒤로 튀어나온 이는 음식을 제대로 씹는 걸 방해하기도 하거든. 잘 씹지 못하면 대충 씹어서 삼키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치아 모양이 다르면 외모도 다르게 보이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동무들과 어울리는 데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자기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무가 있다면 늦지 않게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 사람마다 치료할 때가 다르거든. 어릴 때부터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기다렸다가 해야 하기도 해.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 우리는 왜 빠듯빠듯한 치아를 교정하는 치료를 받을까?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이모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동무들이 생각하는 '정상'은 무엇이니? 비정상이 아닌 거? 올바른 거? 국어사전에서는 정상을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라고 설명해. 이모가 치아교정학 첫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 정상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기 사이에 있는 여러 개를 정상으로 본다는 거지.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정상은 점이 아니라 범위의 개념이다'야. 시험문제의 정답은 한 개잖아. 그런데 말이야. 정상의 범위 안에서는 정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어. 놀랍지?

한 사람의 치아 개수는 총 28개에서 32개야. 만약 치아가 모두 빠듯빠듯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교정해야지. 그런데 열 개에서 열다섯 개 정도만 그렇다면? 아마 교정하겠지. 그럼 다섯 개가 빠듯다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교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다면 치아 한두 개 정도만 그렇다면? 친구나 엄마·아빠한테 물어보고 곰곰이 생각한

뒤에 결정할지도 몰라. 어떤 동무는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는 빠듯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동무는 치아 한두 개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떤 걸 '맞다 혹은 틀리다,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구분 지으려고 해.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 건강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치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웃었을 때 가지런히 보이는 하얀 치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치아의 모습을 '아름답다, 예쁘다, 닳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얀 치아만 건강한 치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 건강의 기준은 대부분 전문가가 정한 거야.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오늘 이모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도 그 기준을 건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야.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어. 선생님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니까?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이 대체로 맞아.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동무들도 그 기준에 동의하니? 내가 정말로 지금 모습에 불만족스러운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서 따라 하게 된 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물론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아 줘. 마흔이 넘은 이모도 아직 하는 고민이거든.

질문만 하고 답이 없어서 어리둥절하니? 오늘 목표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동무들을 고민하게 하는 거였단다. 자, 그럼 고민하는 건강한 나라의 건강한 어린이가 되어 볼까!^^ 🍓